

#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 뭐길래

###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 과정 영향력 막강...정치권 못지않은 과열·혼탁 선거 이권 개입에 비리 다반사...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전문성·투명성 높여야"

광주에서 진행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100곳에 달하는 가운데, 조합장 선거의 과열·혼탁과 조합장의 이권 다툼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에만 94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100여명의 전·현직 조합장들이 활동하고 있다.

조합장은 조합원 뜻을 모아 사업 방향 등 각종의 사결정을 하는 조합의 대표로 정비사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업으로 본다면 대표이사(CEO)인 셈이다. 추진위 단계부터 입주 이후 조합 청산까지 수백 억원 규모의 사업을 맡아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업계에서는 조합장이 정비업체나 시공사의 수주 경쟁에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평생 먹고살 것 본다'는 얘기가 횡행할 정도로 조합장의 권한은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는 정치권 선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해 조합내부의 갈등은 물론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서는 조합장 경합이 치열했던 지난해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 전부터 사전 선거운동이 벌어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까지 받는 등 흡사 정치 선거의 복사판이었다.

영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장 선임 결의를 놓고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

는 등 내부 갈등이 이어지다 7개월 만에야 마무리됐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장은 50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봉만 놓고 보면 6000만원 수준이지만, 상여금이 판공비까지 수천만원을 별도로 쓰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연 1억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조합에서는 성과급이 문제가 됐다. 임동(유동)재개발조합에서는 재개발 성공을 이유로 조합장 2억5000만원, 상근이사 2억원, 감사 8000만원 등 조합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안건을 이사회 및 대의원의 의견을 진행하려다 논란이 됐다. 결국 조합원들의 반대로 모든 조합원 전체에

게 이익금을 동일한 비율로 분배하자는 안건으로 재조정돼 조합총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조합장의 말로가 평탄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수백에서 수천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는 만큼 유혹의 손길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공사 선정이나 용역업체 선정을 놓고도 이권을 노린 업체들의 유혹으로 비리가 이어져 일부 조합장은 구속되기도 했다.

지산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는 업무대행사의 사기 행각을 파악하고도 형사고발 하지 않고 묵인한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체가 2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따냈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A씨는 또 자신의 아파트를 2억원에 업무대행사와 매매계약을 하고도 다시 2억7000만원으로 증액해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광항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전 조합장도 재개발과

정에서 도시정비비제로 선정해주시고 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4억7000만원·추징금 2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광항동 재개발은 조합장과 조합임원들까지 모조리 비리에 연루 돼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다. 결국 지난해 4월 법원은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1년 가까이 지난 이달 20일에서야 새로운 조합장 선거를 위한 선관회 구성 총회가 열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 번 재개발·재건축을 성공시키면 '스타 조합장'으로 떠올라 또다른 재건축 단지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직업이 조합장인 셈이다.

이와 관련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사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진 속 미안마 참상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미안마 민중항쟁 현장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 광산구 의사회 "미안마 의료진 의지·희생 연대"

###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

광주 광산구 의사회가 미안마 의료진의 의지와 희생에 강한 연대를 표명했다.

광주 광산구 의사회는 20일 "군사 쿠데타 발발 뒤 미안마의 의료진들은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었다"며 이들의 숭고한 의지와 희생에 강력한 연대

의 뜻을 밝혔다.

광산구 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안마 의료진들은 쿠데타 직후부터 시민 불복종 운동을 주도하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안마 국민들의 의지를 고취시켰다. 이는 수천 명의 공무원과 주요 공기업 직원들까지 시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3일부터 시작된 의사와 간호사들의 투쟁이 현재 미안마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라며 "독재에 저항하는 미안마 국민과 의료진의 인도주의적 민주화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평화적 시위대를 향한 군부 독재 정권의 폭력적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안마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발표를 환영하며, 이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 위기학생 대상 '꼬덕꼬덕 보호망' 가동

### 광주시교육청, 구청·경찰서·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

광주교육청이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서·구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생보호망을 본격 가동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5개구 경찰서와 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꼬덕꼬덕 학생보호망' 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형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구축된 통합교육 성장지원 네트워크 '꼬덕꼬덕 학생보호망'은 지역 내 유관기관과 함께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

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각 기관들은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과 가정에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학생 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협업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집중 논의했다.

유관기관들은 위기학생의 적극 발굴 및 통합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석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은 "현재의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소통을 통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교육청은 '꼬덕꼬덕 학생보호망' 참여기관들의 협업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대, 교내 임대업체와 상생의 길 찾는다

### 임대료 감면 연장 등

광주대학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임대업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대는 지난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에 이은 후속 조치로 교내 임대업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인 4월 26일까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임대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상황에서 고등 분담과 상생방안을 위한 대책이다.

광주대는 교내 임대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임대료 감면 연장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 연장과 경

기집체 등을 지켜본 뒤 추후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광주대는 지난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교내 사진관과 편의점, 카페, 서점 등 15개 매장의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목받았다.

광주대 사진관 업주는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발길이 뜸 끊겨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며 "하지만 학교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가자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형중 총장은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임대업체 분들과 함께 상생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 되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 된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이든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만인지 골방안자에 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